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녹화 등 실제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기술요소 제시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계획 부재 - 지상 1층 온실의 관람자 동선이 단조로움 - 신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구체적인 설계적용부위 및 발전량 미제시 - 옥상공간 활용시스템들이 어떻게 본 설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옥상평면도 부재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환상적인 전지계획을 제안하고 있으나 난대식물 전시와 맥락이 맞을지 의문 - 싱가포르 가는 스바이더웨이 식물원과 규모와 공사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주어진 공사비로 본 계획안대로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의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 - 지하 사무공간에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불가 - 구체적인 외피구조 및 관람객 동선 계획 부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릉수목원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계획 및 온실내 원활한 관람동선 - 다채로운 온실 관람 시점 및 난대식물 전시 수요에 대한 차별화된 고찰 - 식물중심 온실공간과 사람중심 실내공간을 조화롭게 배치 - 방문객과 연구진 동선의 명확한 분리와 공간적 결합 - 선크 빗물 정원을 활용한 지하 사무공간의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계획 부재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 업무공간 출입구와 1층 온실 주출입구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지하층 연구실들에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위한 선크 계획 우수 - 온실내의 관람객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계획되어 있으며 2층의 스카이 워크를 통한 관람이 가능하여 2층 높이에에서의 관람동선 제공 - 겨울철 열손실이 심한 북측벽을 불투명 단열외벽으로 계획하여 난방부하 저감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 상부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어 굴뚝효과에 의한 겨울철 열손실 및 여름철 더운 상부 공기층을 통한 상부 전망대까지 접근은 다소 비합리적임 - BIPV패널의 설치 면적이 너무 적어 실제 태양광발전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온실의 유리부분에 스마트 필름을 적용한 스마트 글라스 계획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있음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권영철

조달청장 귀하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p>박물관으로부터의 외부 진입동선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관람자 동선, 관람자 옥상휴게 동선, 연구자 동선을 분리하여 효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사육실 등 지하층 전공간에 공조환기, 환온환습 등 HVAC설비를 설치하여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햇빛을 지하로 유입시키는 자연채광시스템을 설비적으로 도입하여 자연광을 기반으로 한 지하공간 실내조명을 제안하고 있음.</p> <p>그러나 일반적으로 온실 전시공간 출입문과 음압실에는 방풍실 설치가 필요하며, 외부 수공간인 카멜리아 폰드는 휴게공간과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은 될 수 있겠으나 환온환습을 유지하여야 하는 온실과 연구공간에 있어 수계공급원 또는 복사열전달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계설비 에너지 부하 증대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하공간의 높은 층고와 창호의 위치로 인하여 선크를 통한 일사유입은 겨울철에는 분리할 것으로 예상됨.</p>
E	<p>박물관으로부터의 들어오는 진입동선에 상주직원 출입동선을 계획하였고, 방문자 동선을 연구동 진입구를 지나도록 만들어 동선이 혼재되고 있음. 지하공간 내 연구시설에 대한 자연채광이나 음압시설 및 바이오 해저드 이슈 극복을 위한 공조시스템 설치계획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제안자가 강조하고 있는 '복사냉각을 탄소복제에 활용한 친환경기법' 또한 제출도서 상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p>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움	<p>일반적인 형태의 온실의 형태를 벗어나 아코디언 주름을 본따 매스를 세분화하였고, 입면의 리듬감을 형성하여 각 주름의 입면과 천장을 통한 온실형태를 계획하였음. 또한 1~20미터에 이르는 다채로운 난대식물과 곤충의 관찰을 위하여 공중보행로와 선크경원을 만들어 시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크게 1층의 식물 중심의 온실공간과 지하 1층의 사람중심의 연구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음. (지하층이 아닌 1층에 회의실과 사무실이 배치되었으나 구획됨)</p> <p>그러나 연구실, 사육실, 재배실 등 각 실별 공조(환기)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계획하였는데, 해당실 진입부에 에어샤워를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클린룸을 설치하여 음압설비 설치에 필요한 전실의 개념을 준비실과 함께 모호하게 만들어 공간계획과 공조설비의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의 제시가 필요함. 또한 온실 서비스 출입구 및 카페영역으로부터의 실내 연결부 출입문, 계단실에도 환온환습을 위한 방풍실 또는 기밀도어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p>관람객과 연구원의 동선을 분리한 조닝계획과 식물? 곤충의 성장환경을 고려한 자연채광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였음. 특히, 바이오해저드 관련 이슈를 반영한 공간계획과 기계설비계획을 제안하였음. 특히, 지상 2층부에 스카이워크와 데크를 설치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식물과 곤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카페테리아와 플라워샵을 설치하여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하공간에는 음압설비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한 선크와 DA를 설치하였고, 사육실과 재배실 등 각 실별 음압설비를 설치하여 감염병과 세균으로부터 총 보존 및 연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p> <p>다만, 일반적으로 온실 전시공간 출입문에는 방풍실 설치 필요함. 음압설비 설치공간에도 전실이 필요하며 또, 지하공간에 온실마당, 햇살마당의 선크이 2개소 있음에도 외기에 접하는 면에 출입문(비상구)을 설치하지 않아 지하공간에서 피난계단이나 외부공간으로 접근에 불리함이 있음. 준비실 앞에 위치한 계단도 기계실, 전기실과 인접해 있어 화재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고 1층 온실내부와 연결되므로 미팅라운지 앞 통제문과 함께 평상시 통제할 가능성이 큼. 지하층에서의 2방향 피난 관점에서 본다면 외기와 접하는 부분에 기밀성이 보장되는 피난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투시형 BIPV, ETFE 등의 계획에 있어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p>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p>박물관으로부터의 진입동선 연계로 접근성을 확보하였고, 비상? 서비스차량 동선과 방문자-연구자가 동선분리로 각각의 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하였음. 선크를 계획하여 지하공간에 대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였고 직간접 개폐창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토록 계획하였음.</p> <p>그러나 온실 전시공간을 지하1층과 1층부에 계획하면서 (전망대의 역할이 온실 관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므로) 키가 큰 난대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거나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층으로 관람객이 접근할 경우 지하 연구시설 및 사무공간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여기서 만약 관리의 목적으로 연구동 방향 출입문을 차단할 경우 지하공간에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므로 출입통제용 게이트와 함께 화재경보와 연동하여 개방되도록 연계하여야 함.)</p> <p>결론으로, 전실 없는 음압실을 재배실이나 사육실 등 연구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기동 프레임에 일부 설치한 솔라셀이 BIPV방식인지 BAPV방식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은 32%이상임. 뿐만 아니라 온실전시공간 출입문에 대한 방풍실 설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최준호

조달청장 귀하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수목원과 온실의 연계성을 위해 수변공간을 적절히 제시함 온실공간 계획은 별도 상징성이 부족하며 각종 자료를 나열한 것으로 보임 1,2층 평면도를 겹쳐 그려 관람객 동선 파악이 제대로 안됨 입면은 단순한 박공형 매스의 형태로 단조로운 경향이 있음 기계설비 환기시스템 적용을 적절히 제시함
E	난대온실 공간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며 관람객의 이동 동선에 대한 도서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어려움 입면의 형태가 단조롭고 스카이워크의 접근 동선이 엘리베이터로만 집중되어 재난 시 피난 등에 불리해 보임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웅	기존 난대온실의 주변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인근 시설과 연계한 동선계획을 적절히 제시함 관람객과 연구원의 이동 동선이 잘 분리되었으나 사무실의 1층배치로 난대온실의 공간이 다소 축소됨 휴게공간이 난대온실을 거쳐 가도록 계획되어 외부에서 별도 출입이 안되는점은 아쉬우며, 수장고의 지상2층 설치는 온습도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공중보행로 설치로 인한 난대식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둥의 간섭에 따른 하부 관람객의 동선에 연계한 디자인적 검토가 필요함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연구영역과 관람영역 동선의 구분이 잘 되어 있으며 관람객의 이동 동선이 자연스럽게 배치됨. 다만, 연구로비 및 카페의 설치로 인해 온실공간이 다소 축소된 경향이 있으며, 중앙 코어의 설치로 복측 공간에 배치되는 식물은 생육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검토가 필요함 스카이워크를 통한 전시동선은 좋으나 온실의 상부로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로 인한 관람객의 피로도 해결과 하부에서 보이는 시각처리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스카이워크가 행잉브릿지 형태라면 구조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보이며 지붕의 적설하중과 연계한 충분한 구조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조식물 온실의 별도 공간 마련과 남측 선큰을 통한 채광유입은 적절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캣워크 등 설치계획은 우수함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상징적 입면계획의 모티브를 잘 찾아서 입면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난대식물과 온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 옥외 전망대의 설치로 관람객의 이용에 활용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우수활용, 삼중유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적절히 사용함 스마트 환기설비 계획을 적절히 제시함 기계, 전기실 등 지하공간에 D.A 설치계획이 없어 실제 장비반입, 환기 등을 위한 D.A 설치 시 상부 동선 간섭과 부지 경계 내에서 처리하기 다소 어려워 보임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황재현

조달청장 귀하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p>온실공간을 여러 가지 분위기로 제안하며 다양한 형태가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으로 접근한 점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동서측과 남북측의 이미지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부에 수공간을 두고 지하에 넓은 공간까지 떨어지는 폭포를 만들어 내어 지하에 수경공간과 정화식물 전시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였으나 지하 연구 및 업무공간과 야외수경 휴게공간은 관람객은 이용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정화식물 전시공간은 지하 연구 및 업무공간과 기능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점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식물 내부도 여러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나 많은 식물의 배치보다 관람에 대한 고려가 접목된 표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요소를 제안하고 있으나 계획에 비추어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p> <p>외부 수공간을 넓게 구성하려다 보니 배치 계획상 연구자의 주출입구가 관람자의 외부 동선과 충돌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 공간을 제안한 점은 좋아 보이나 건축 컨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안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 또한 분절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구성하려고 한 측면이 기능적으로 제안한 평면의 모습과 잘 연계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듭니다. 지하에도 좋은 공간을 제안하여 연구 및 업무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제안한 점은 좋지만, 폭포 공간은 관람객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온도와 습도를 자동제어하는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약을 하려는 고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태양광 시설은 블라인드와 태양광 쉼터의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어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p>
E	<p>건물 형태의 상징성이 배치와 평면에 있어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꽃 폭포라는 제안이 필요한 이유를 사례분석으로 보여주고자 했으나 난대온실과 어울리는 이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두 원형 공간을 직선과 비정형으로 다르게 구성하려고 했으나 공간 요소는 비슷한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기능적인 공간들은 원형 밖으로 돌출되어 형태를 구성하다보니 외부에서는 기능적인 시설이 강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붕층의 구조 형태는 구조의 가능성보다 형태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불편함이 보입니다. 지하의 연구 및 사무공간은 상부의 상징적 형태와는 다르게 너무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상부와 하부의 평면 구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p> <p>꽃을 주제로 하다보니 원형을 강조하고자 평면을 제안하였으나 평면 표현에 있어 주변 시설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색상의 다름으로 단면과 평면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이는 공간을 상상하기 힘든 도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징적 형태를 두 개로 분절하고 크기를 조절하여 주변의 수목과 어울리게 한 점은 괜찮으나 동일한 두 개의 크기와 비슷한 내부 구성 요소는 두 공간을 분절할 이유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내부 공간의 사진과 제안하고 있는 난대 온실의 공간 규모가 달라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p> <p>온실의 환경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제안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조사한 점은 좋으나 본 제안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잘 표현되지 못하여 아쉬웁니다.</p>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웅	<p>난대 식물의 높이를 분석하여 온실 관람 시점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공간을 설계한 우수한 안입니다. 형태 반복을 통해 형태만 강조될 수 있었으나 다양한 레벨을 접목하여 관람의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잘 제안하였고, 형태의 반복이 증축으로도 잘 접목되었습니다. 공중 보행로를 통해 온실의 내부 전망대를 계획한 점도 좋습니다. 휴게테라스가 건물의 뒷 공간이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으나, 테라스에서 보는 대상을 명확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공형의 단순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면의 반복 절곡을 통해 확장 모델링의 가능성, 환기창 가능성, 우수 수집 가능성 등으로 연계한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p> <p>난대 온실이 중심이 되는 공간 구성이 돋보이고, 휴게 공간이 실내 넓은 정원과 연계되어 좋은 환경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사무실을 지상과 지하로 분리하여 지하 사무실은 실내 넓은 정원과 연계하여 연구환경을 잘 고려하였습니다. 2층의 전시공간과 실내 전망대를 통해 난대 온실을 공중에서 관람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관람 환경을 제안하였습니다. 박공 형태의 온실은 주변 수목과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p> <p>자연환기를 위한 환기창과 유동환/배기팬 및 복사 난방 시스템을 접목한 온도자동제어, 그리고 실내 자연교환설비는 에너지 소모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라 판단됩니다.</p> <p>수목원 환경을 위해 제시된 휴게공간을 온실 카페로 제안한 아이디어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p>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p>건물의 형태가 기능적으로 잘 정리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상징성을 통해 주변과의 조화를 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큰 온실 공간에 마운틴데크와 스카이워크로 온실을 여러 높이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람객의 외부 동선 바로 옆에 업무시설과 연구시설을 위한 씨크이 배치되어 있어 다소 기능이 충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테리아와 플라워 샵이 온실 입면과 동일하게 제안된 점은 설계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나 향후 사용 시 많은 채광과 온도 상승 등에 대한 입면피해를 없애기 위한 추가 설비 요구로 제안한 모습과 달라질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p> <p>온실공간과 지원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크고 작은 매스를 제안하였고 평면적인 매스 구성은 적절해보입니다. 그리고 매스의 형태는 주변 수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p> <p>다만 큰 공간을 유지하려는 구조체의 두께가 형태의 단순함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p> <p>온실 내부의 공간도 난대온실의 다양함을 보여주려 계획하였습니다. 로비 공간에 진입 홀에서 2층까지 연결된 계단식 벤치와 2층의 카페테리아, 플라워 샵은 좋은 공간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난대온실의 내부 구성이 너무 많을 수 있는 부분은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p> <p>녹색 온실 시스템 계획을 통해 온실 환경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제안이 보입니다.</p>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건물의 형태보다 온실에 전시되는 식물을 위한 환경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강한 상징성은 주변과의 조화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전망대를 통해 주변을 바라보게 하려는 접근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전망의 측면 또한 건물의 강한 상징성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며, 상부 구조물이 건축선 밖으로 돌출되고 있어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관람객의 외부 동선 바로 옆에 업무시설과 연구시설을 위한 썬큰이 배치되어 있고 지하 전시 공간을 업무시설과 연구시설에 면하게 하는 등 기능이 충돌되는 공간이 보입니다. 부지를 넓게 사용하려는 배치는 이해가 되나 타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려다 보니 식물 위주의 전시 방식에 어려움이 보입니다. 지하의 전시공간과 전망대로 가는 수직 동선이 식물원의 중심에 있어 온실보다 전망이 주가 되는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수목과 어울리지 않는 너무 강한 형태의 상징성이 보이며 썬큰 공간으로 확장을 고려하였으나 층층은 지하 공간이 안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BIPV 태양광 패널을 구조 모듈 상단에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구조 전체와 유리창에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채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김동규

조달청장 귀하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발표가 중간에 시간초과로 멈춰 사전 검토한 자료로 대체합니다 연구공간과 전시공간의 기능적 분리가 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유기적 관계성 측면에서 명확치 않아 보임 예정 공사비내 설계가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E	2개 원형형태로 연결된 평면과 형태가 난대온실의 기능과 관람등에 적합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잘 안됨 예정 공사비내 계획이 가능한 지도 의문이 있음 관람동선상 1층에서 상부 입체동선 연결이 원활치 않아 보입니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웅	평가사유서 기능적 조닝에 있어 전시공간과 연구공간의 명확한 분리와 동선의 겹치지 않도록 세심 고려 하였고 식물공간과 사람공간과의 기능적 분리는 이루면서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허물며 색다른 공간 체험 가능 고려 사항 인상적임 아코디언 형태는 기능적으로도 우수집수와 유지관리에 강점이 있어 보이며 기능이 다른 공간을 하나로 잘 연여낸 듯 보였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연구기능과 전시기능 분리와 동선 연계등 우수해 보임 2개의 기능이 2개의 형태로 나타난 온실의 이미지 특징 있어 보임 다만 원형의 스타이 워크가 1층 전시관람시 시각적 부담을 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타원 형태의 한공간안에 연구와 전시 기능 분리는 양호해 보임 형태가 가지는 과도한 인상이 난대온실의 정체성에 혼선이 있어 보이며 전망대의 기능이 애매모호하게 구현된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방명세

조달청장 귀하

평가사유서

용역명 : 국립수목원 난대온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체명	평가사유
C	난대식물의 전시 프로그램을 감안한 온실공간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임. 수공간을 도입한 배치계획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경제성을 고려한 외관계획을 제안함. 1,2층의 공간계획과 동선계획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위해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E	'flower fall'을 온실의 주요 요소로 온실 공간계획이 제안 됨.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적용은 양호하나 본 제안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함. 난대온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공간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 꽃의 심장, 꽃의 폭포 등에 대한 구현에 집중한 나머지 온실공간 및 연구공간과 사용자의 동선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리웅	아코디언 형태의 겹겹 주름을 평면, 입면, 지붕에 적용한 제안으로 차별성이 있으며 실내공간도 아코디언 형태의 평면계획으로 디자인 어휘의 일관성이 있음. 온실공간은 온실로서의 기능과 방문자를 위한 온실카페에 대한 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제안으로 판단됨. 지하공간의 연구공간 등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상 2층에 계획된 외부설비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대지 및 주변환경에 조화되면서 기능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제안됨.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온실계획 및 지하층의 자연환기, 채광확보를 위한 단면구성이 합리적이며 대류현상을 이용한 친환경 온실 설계가 제안됨. 입체적인 관람동선계획을 제안하였으며 관람객과 연구원의 합리적인 동선을 고려한 수직조닝계획을 제안함.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매스 및 외관계획이며 건물의 상징성도 적절히 제안됨.
주식회사 지호도시건축사사무소	면밀한 대지분석을 통해 주변환경과 연계된 동선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히 제안함. 건물에 4개의 출입구를 사방에 제안하여 주변의 동선과 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나 건물의 관리차원에서 출입구의 위치와 개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선크을 이용한 카페, 쉼터, 야외강연 및 행사장 공간을 제안하였으나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함. 광릉요강꽃을 모티브로 한 외관 디자인 컨셉이 차별적이고 상징적이거나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며 구조체가 과도하게 인지될 수 있음.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온실설계를 위한 건축계획적 대응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2023년08월31일

심사위원 : 전한중

조달청장 귀하